

10억 아파트도 '당근' 중고 거래

6 당근	중고거래	동네업체	알바	부동산 직거래	중고차 직거래
아파트 15억 - 전종도 도구를 작은 양자재 100개 7년	아파트 22억 - 도리1호 호랑고 할 당근				
아파트 19억 5000만원 - 42평 도구를 복층 일터하우스	아파트 15억 - 9호역 30평가				
아파트 12억 6000만원 - 위과 전 세차재 100개	아파트 15억 5000만원 - 서울 북영사 강남구				
아파트 16억 - 9호역 40평 4방거실 4방거실	아파트 12억 5000만원 - 23평 도구를 산후마마트 1호실				

▲ 당근에 올라온 아파트 매물들. 사진=daangn.com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10억원 이상의 매물도 눈에 띈다.

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 내에 소액의 전월세 거래뿐만 아니라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자치구별로 수백 건씩 직거래 매물로 다수 올라와 있다.

과거 부동산 직거래는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에 증여 성 거래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심리 악화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당근'과 같은 직거래 앱이나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경로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경기 속에서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이점도 부각되고 있다. 직거래할 경우 10억원 아파트의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 500만원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5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중개보수의 30%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직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적고, 경위의 수를 생각해 특약을 정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올해 아이 낳으면 7세까지 2960만원 현금 지원 받는다

올해부터 출산·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이 확대됐다.

지난 22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



▲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이어서 8년간 960만원이 된다.

종합하면, 아이가 태어난 첫 해 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총 1520만원이다.

둘째 해에는 총 720만원을 받는다. 이때까지 현금성 지원액수를 합치면 2960만원이다.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 28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지난해 설보다 8% 넘게 올랐는데, 역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KBS'에 따르면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설 제수용품 비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올랐다.

4인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8만 1500원으로 지난해보다 8.9%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38만 원 정도로 전통시장보다 35% 더 비쌌다.

품목별로 보면, 과일과 채소가 생산량 감소와 한파



▲ 서울 성북구의 한 시장에서 고객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등으로 크게 올랐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사과 3개 가격은 1만 5,000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40% 넘게 올랐고, 대파는 1단에 4,000원으로 60%나 뛰었다.

견과류 가격도 작황 부진으로 1년 전보다 20%가량 뛰었다.

소고기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값이 오르면서 소폭 올랐고, 수산물 중에선 중국산 조기와 다시마 가격이 각각 33%, 20% 올랐다.

밀가루와 식용유 등 일부 공산품 가격은 1년 전보다 소폭 내렸다.

한국물가정보는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면 대다수 품목이 올랐다"며 저렴하게 차례상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Kyung Sook Yu, D.D.S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클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Free
임플란트 상담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